

제주 역사 유적 복원

1. 탐라궁전지(耽羅宮殿址)를 찾자²⁵⁾

제주문화(濟州文化)는 선사시대(先史時代)를 제쳐 놓고도 2천년의 역사를 지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문화에서만 보아도 적어도 2천년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朝鮮) 초 훼손해 버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이미 ‘도이(島夷)’의 기록을 볼 수 있고,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서는 ‘주호(州胡)’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주호’의 기록을 통하여 기

25) 『한라일보』(삼각봉), 1991. 10. 18 (금), 논설위원.

원 3세기 이전에 살았던 원제주족(原濟州族)의 문화를 대강 살펴볼 수가 있다.

이처럼 오랜 문화를 지녀 있는데도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세후기(中世後期) 삼별초(三別抄) 이후의 유적과 근세(近世) 조선시대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손을 꼽아볼만한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제주(濟州)는 12세기 초엽, 중세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高麗)와는 독립된 탐라국(耽羅國)이었다. 5세기 이후 백제(百濟)나 신라(新羅)와 교류했던 관계사만 놓고 보아도 7백년 이상 지속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여기에 관한 유적은 하나도 없는가. 나는 늘 여기에 궁금증을 느껴온 터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고로(古老)들에게 탐문해 보기도 하고 기록자료 등을 추적해 보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때의 유적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책적으로 훼손·소멸 시켜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한 문헌은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초기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 보면 그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고 또 그 유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추적해 본 몇 가지 사례를 다음에 밝히려고 한다.

탐라국(耽羅國)은 고려의 꾸준한 교섭에 굴복하여 1105년 마침내 고려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주(星主)·왕자(王子) 제도의 권한을 인정하는 이원정치(二元政治)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려시대를 통하여 려정(麗廷)이 파견한 수령(守令)은 중요한 정사를 성주 왕자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란(民亂)이 발생하여도 이들 토주관(土州官)의 협력 없이는 진압할 힘조차 없었다.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행하려던 조선 조정은 바로 이 같은 취약성을 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주 왕자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도지관(都知管) 제도로, 다음에는 진무(鎭撫) 제도로 마침내는 유향직(留鄉職) 제도로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성주·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왕 귀족 토호(土豪) 등 강력했던 세력을 점차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오던 모든 관아를 접수하고 그 자리 또는 그 먹자리에 새로운 큰 건물들은 창건해 나갔다. 제주성(濟州城)의 개축을 비롯하여 향교(鄕校) 홍화각(弘化閣) 관덕정(觀德亭) 영주관(瀛州館) 진무청(鎭撫廳) 등 15세기부터 시작되는 관아 정비 시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때를 전후해서 탐라국시대의 유물 유적이 점진적으로 훼손돼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당시 대궐을 비롯하여 주요 건물들을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그 위치가 대체로 산지천(山地川)에서 병문천(屏門川) 사이 일대가 아니었는가 한다. 그것은 제주고성(濟州古城)과 칠성대(七星臺)의 위치, 일도·이도·삼도(一徙·二徙·三徙)의 지명과 유래, 고로(古老)들의 전설, 문집(文集) 등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기록 등을 토대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다.

일·이·삼도(一·二·三徙)의 구역이 바로 이 지역 안에 배분돼 있고 칠성대(七星臺)도 일도(一徙)동 1308번지에서 이도(二徙)동을 거쳐 삼도(三徙)동 159번지에 걸쳐 형성돼 있다. 제주(濟州)성은 15세기 초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있던 서성(西城)(지금의 ‘무근성 거리’)은 1927년 제주(濟州) 산지항(山地港) 축항공사를 위해서 헐려 버렸지만 그 이전 이미 서쪽으로 고성지(古城址)가 있었던 기록을 볼 수 있고 산지천 동쪽으로 성이 증축된 것은 1565년 곽홀(郭屹) 목사 당시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산지천 서쪽으로 성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궐(大闕)은 관덕정(觀德亭) 뒤편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대궐터는 어디였을까. 『탁라국서(毛羅國書)』를 보면 궁전유지(宮殿遺址)는 “조선조 때 세병헌(洗兵軒)이 있었던 터로 좌우에 자전(紫電)·청상고(靑霜庫)가 있었으며 지금은 우편국 자리가 있다.”고 하였다. 『탐라성주유사(耽羅星主遺事)』도 “진무청(鎭撫廳)터”라고 하여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조선시대 5백여 년 동안 고(高)씨에게 제주목사(濟州牧使) 하나 내주지 않았던 조선조가 궁전을 그대로 19세기까지 진무청(鎭撫廳)으로 쓰게 하였다는 것은 수궁할 수가 없다. 『노봉집(蘆峯集)』을 보면 김정(金)이 월대(月臺)를 노래한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다.

고도유적일황량	古都遺跡日荒涼
착처인위총훼상	著處人爲總毀傷
왕복평판조일리	往復平阪昭一理

만성성월부생광 滿城星月復生光

옛 도읍의 유적은 날로 황량해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훼손시켜 버렸네/
널찍한 언덕을 오가며 큰 이치를 알아내고/
성 가득히 별과 달 기운이 차게 다시 빛을 살렸네.

이것은 월대(月臺)를 중심으로 궁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월대는 지금의 관덕정(觀德亭) 바로 서쪽 일대를 말한다. 김정(金)은 이 월대(月臺)를 수축하고 나서 ‘선덕대(宣德臺)’라고 명명하였다. 이 비각(碑刻)은 지금도 관덕정 뒤뜰에 남아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때 옛 궁궐터는 바로 관덕정(觀德亭) 뒤편 일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조선시대 초 최해산(崔海山)이 그 동북에 홍화각(弘化閣)을 세우고 그보다 10여 년 뒤에는 신숙청(辛叔晴)이 바로 그 먹살에 관덕정(觀德亭)을 앉혔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왕맥을 단절하려는 일종의 풍수사상에서 나온 기도였다고 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때의 유적을 발굴 조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길이 전연 없다고 체념만 할 문제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궁지만이라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비록 복원이 불가능 하더라도 유허비(遺墟碑) 하나라도 세워 놓아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